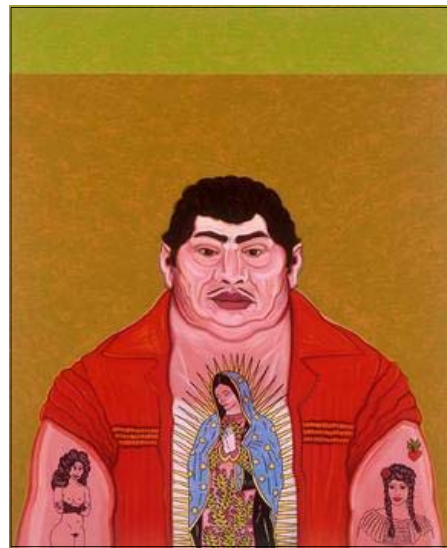


군대에서 화가가 된 세사르 마르티네스

유 화 열

세사르 마르티네스(César Martínez, 1944년생)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사이에 ‘치카노 미술운동’에서¹⁾ 맹활약한 자칭 타칭 치카노 예술가다. 현재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작품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마르티네스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름 아닌 동네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자」(Hombre que le Gustan las Mujeres/The Man Who Loves Women, 2005)는 가슴에 과달루페 성모를 문신으로 새겨놓아 누가 보더라도



마르티네스는 멕시코계 미국인하면 흔히 떠올리는 뻘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싶었다. 세사르 마르티네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남자」(Hombre que le gustan las mujeres/The Man Who Loves Women, 2005), 캔버스에 유채, 111.76×137.16cm.

라도 멕시코계 미국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상화 속 인물들은 점잖지도 근엄하지도 않지만 마르티네스는 이처럼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멕시코계 미국인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싶었다. 마르티네스에게 있어서 작가적 신념이라면, 멕시코계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다문화적

1) ‘치카노 미술운동’(Chicano Movement)은 1960년대 초에 포스트-멕시코 혁명 이데올로기와 오늘날의 멕시코계 미국인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와 병합하여, 그 움직임이 시작됐다.

체험을 탐구하고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술가다운 삶이라고 생각했다. 마르티네스의 초상화는 치카노 미술계는 물론 텍사스 미술계에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최근에 치카노 미술의 랜드마크가 된 굵직한 전시회에서도²⁾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이곳도 저곳도 아닌, 국경은 나의 고향이다

세사르 마르티네스는 텍사스주 국경에 위치한 라레도에서 태어났다. 한 살도 안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마르티네스의 가족이 원래 살았던 곳은 멕시코 북부였는데, 20세기 초에 일어난 멕시코혁명으로 먹고 살길이 막연해지자 그때부터 텍사스로 이주해 살았다.



세사르 마르티네스

그는 작품제목을 쓸 때 언제나처럼 스페인어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쓴다. 어떨 때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

나의 어린 시절은 라레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지 그곳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라레도는 멕시코 국경과 맞닿아있는 곳이라, 어릴 적에는 멕시코에 사는 친척집에 놀러가기 위해 아주 여러 번 국경을 넘어 다녔습니다. 아, 그리고 나의 모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우리 식구만 빼놓고 친척들 대부분은 멕시코 북부 농장에서 살았는데, 하루

2) 주요 전시로는 'La Frontera/The Border: Art about the Mexican-U.S. Border Experience' 'CARA-Chicano Art: Resistance and Affirmation 1965-1985' 등이 있다.

종일 온 들판을 쏘다니며 포레들과 어울렸던 그때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보물과도 같습니다. 특히나 초상화에 몰두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보니, 농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억은 형상화 작업에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³⁾

군대에서 만난 괴짜 화가들

마르티네스가 미술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얼토당토않게 군대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라레도 주니어 칼리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1968년에는 텍사스 A&I 칼리지에서 과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학업을 마치고 1969년부터 주한미군부대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1971년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발령을 받아 고향 텍사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멕시코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향한 괴짜 화가들을 만나면서, 마르티네스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향했다.

거기서 아주 낯설지만 익숙한 장면과 맞닥뜨렸어요. 그들의 신분은 나와 같은 군인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인종의 화가’라 불렀는데, 세상 누구보다 자부심 하나는 실로 대단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내 삶은 그림이니 예술이라는 것과는 별 관계없이 살아온 터라 그들이 내 삶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올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샌안토니오 군부대에서 만난 화가들은 다름 아닌 치카노 미술계의 저명인사인 콘 사포(Con Safos) 그룹이었다. 콘 사포는 최초로 결성된 치카노 미술그룹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절에 가히 폭발적인 힘으로 멕시코계 미국인 출신을

3)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기획한 예술가와의 대담 시리즈
(<http://www.aaa.si.edu/collections/interviews/oral-history-interview-csars-martinez-13575>).

집결시켜나갔다. 콘 사포라는 말은 서부해안지역, 텍사스에 사는 멕시코계 미국인, 멕시코인들 사이에서 미끄러운 것을 뜻하지만, 콘 사포 화가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마치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미끌미끌한 비누를 제압할 수 없듯이……. 실제로 그들의 이상을 꿈쩍 못하게 가둬버리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대해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해석된 콘 사포의 의미를 으름 정신으로 내세웠다. 마르티네스는 여태껏 이렇게 자기주장이 강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부류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과 한두 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들에게 폭 빠지고 말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고, 너무나 맞는 말 일색이었다.

콘 사포의 화가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멜 카사스(Mel Casas)는 멕시코계 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치명적 농담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선수였죠. 내가 그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 나에겐 훈장처럼 자랑스롭습니다. 콘 사포의 존재는 오늘날 치카노 미술사에서 너무나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치카노 문화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조차 확인되지 않던 시절에 치카노 미술의 전방에서 그 윤곽선을 그려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행적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더니만 예술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마르티네스는 그렇게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다.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더욱 더 확신을 갖고 콘 사포의 외침을 실현해나갔다. 1970년대 샌안토니오에서 창간한 치카노 신문 『카라콜』(Caracol)의 창간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여 사진, 편집디자인, 칼럼니스트로서 할 수 있는 온 에너지를 끌어냈다. 뒤늦게 출발한 미술가의 길이었으나, 단 한 번도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다지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다. 마르티네스에겐 왜 그려야 하는지 예술에 대한 당위성만큼은 뚜렷했으니까.

젠체하는 그 녀석을 빙자한 문화적 금지

마르티네스의 초상화는 일명 ‘젠체하는 녀석’이란 뜻의 바토스(Batos) 시리즈라 불린다(때로는 ‘최신 유행스타일을 입는 사람’이란 뜻의 ‘파추코’ 시리즈로도 불린다). 이 시리즈는 마르티네스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자신과 같은 멕시코계 미국인을 그린 것인데, 특히 하게도 여느 초상화와 다르게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서 몇 부린 티가 너무나 역력하다. 「핑크색 바지」(1992)는 바토스 시리즈의 주인공답게 선글라스를 끼고서 호주머니에 손을 꼽고서 다소 시건방진 자세로 서있다. 그림 속 인물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주민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더도 덜도 가공하지 않은 채 거리에서 마주칠 수



젠체하는 그 녀석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옷 좀 차려입었네, 너 오늘 어디 가냐’ 정도 되려나. 세사르 마르티네스 「핑크색 바지」(El pantalón rosa/The Pink Pants, 1992), 석판화(45/124), 17.1×25.7cm, 개인소장.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멕시코계 미국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싶었다. 과연 타인의 눈에 맨 처음으로 비춰진 우리들의 인상은 어떨까. 가장 뻔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특징을 드러내는 것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핑크색 바지」에서 보이듯이 바토스 시리즈에는 최신 유행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글라스는 어떤 모양이 유행했는지, 셔츠스타일은 물론 색깔, 프린트문양은 어땠는지까지 마치 몇 년도 잡지에 나온 인물사진처럼 그 시절의 취향, 감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사르 마르티네스는 멕시코계 미국인의 전형적인 타입을 이런 옷 입는 취향, 선글라스와 같은 코드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바토스 시리즈 속 인물은 하나같이 시건방지고 도도해 보인다. 어쩌면 이런 스타일이 바토스의 고유한 방식인데, 그는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뻔뻔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겉으로 보기에 켄체하는 녀석들의 이면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⁴⁾

마르티네스는 무엇을 그려야할지 목적은 분명했지만,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생각한 것을 표현하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작가의 이상이 아무리 명확해도 결국은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미술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사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예전부터 인물 사진은 꼼꼼하게 보관해오던 터라, 마르티네스는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아온 사진첩이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오래된 사진을 한 장씩 들춰보기 시작했다.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나와 내 친구들의 얼굴이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은 어떻게 생겼는지, 표정은 어떻게 짓는지,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면서 우리들이 갖는 보편적 인상을 찾아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속한 인종적 정체성이라는 잣대로 얼굴에 대해 고민한 것이다. 이런 여정에서 탄생된 작품이 「고등학교 재킷을 입고서 켄체하는 그 녀석」(Bato con High School Jacket, 1986)이다. 고등학교 앨범 속 친구의 얼굴에서 누구나 떠올리는 멕시코계 미국인의 얼굴을 찾아낸 것이다. 이런 연유로 그의 초창기 작업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재현해 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마르티네스는 이런 과정에 대해 “문화적

4) César Augusto Martínez, Jacinto Quirarte, Carey Rote, Marion Koogler McNay Art Museum, César A. Martínez: a retrospective, Publisher Rowman & Littlefield, 1999. Carey Clements Rotc, "CÉSAR A. MARTÍNEZ: A DUAL HERITAGE", pp.10-19.

이고 정체성이 녹아든 이미지를 찾기 위한 수고로움”이라고 말하듯이, 마르티네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화였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마르티네스는 사진 속 인물이 거리에서 만난 자신의 이웃인 걸 알게 됐고, 그 후론 사진 외에 관찰에 더 많은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1978년경부터 시작된 그의 바토스 시리즈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르티네스의 이력에서 매우 독특한 것은, 그 당시 많은 현대예술가가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칠 때, 오히려 스테레오타입을 향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속에 든 내용물의 가치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선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야한다는 필요를 느낀 것이다. 멕시코의 고대 문화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 같은 멕시코계 미국인이 시건방지고 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마르티네스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세사르 마르티네스는 작품제목을 정할 때 그림 속 인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이 시각적인 첫인상으로 정한다. 세사르 마르티네스 「고등학교 재킷을 입고서 켄체하는 그녀석」(Bato con High School Jacket, 1986) 캔버스에 아크릴, 163.7×151.3cm, 개인소장

유화열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LLILAS에 방문학자로 있으며, 저서로는 『라틴현대미술, 저항을 그리다』, 『예술에서 위안 받은 그녀들』이 있다.